

#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수올\* · 김소명\*\*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환자 안전과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관찰 위주의 실습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Chaung, 2011; Pai, 2015). 이로 인해 간호현장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임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요구(Jang & Kwag, 2013)하고 있으며, 신규 간호사 채용 후 일정 기간 실무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교육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Benner, Sutphen, Leonard, & Day, 2010; Nelwati, McKenna, & Plummer, 2013),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Shin & Cho, 2012) 노력을 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적절한 지식

과 기술, 태도, 판단을 통하여 능숙하게 간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Campbell & Mackay, 2001), 간호사의 부적절한 임상수행능력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Jung, 2014). 또한, 간호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호사들은 필수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hin, Lee, & Lim, 201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에 대한 신념을 지니는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실습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귀인성향은 개인마다 사건의 원인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Seo, 2011)으로, 어떤 행동의 결과를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고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 성향과 자기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연이나 운 또는 운명의 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외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namikin@hanmail.net)

• Received: 7 August 2015 • Revised: 25 September 2015 • Accepted: 15 December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Somyeong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170 Hyeonchung-ro, Nam-gu, Daegu 42415, Korea  
Tel: 82-53-650-9403 E-mail: namikin@hanmail.net

(Leveson, 1981). 귀인성향 중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적응이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Hsieh & Kang, 2010; Yune, Park, Chung, & Lee, 2011) 귀인성향 중 내적 성향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귀인성향과 함께 학업의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다. 자기효능감은 무슨 일이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 구체적인 자신감으로(Bandura, 1977), 선행연구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귀인 시키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달라지며(Lee & Lim, 2014),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 Lee,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환경에 적응을 잘하므로 실습 만족도가 높아지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in,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M 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20명을 편의 추출 하였다.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46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개 대학 간호학과장으로부터 연구 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되고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본 연구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미완성된 4부를 제외한 214부(97.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귀인성향

귀인성향은 Levenson (1981)이 개발하고 An (198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적

성향 8 문항, 타인 성향 8 문항, 우연 성향 8 문항의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개발당시 내적 성향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8, 타인 지향 Cronbach's  $\alpha$ 는 .64, 우연 지향 Cronbach's  $\alpha$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1이었고 내적성향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1, 타인 지향 Cronbach's  $\alpha$ 는 .80, 우연 지향 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 (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 Efficacy Scale, SES)를 Hong (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효능감 6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 (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 3)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e)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1991)이 개발하고, Choi (2005)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못 한다' 1점부터 '매우 잘한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191명(89.3%), 남학생 23명(10.7%)이고, 3학년 148명(69.2%), 4학년 66명(30.8%)이었다. 전 학기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평균 3.6~3.9점이 134명(62.6%)이었다. 대상자의 67%가 간호학에 '만족한다'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못한다'로 답한 학생은 7%이었다. 간호학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로 답한 학생은 74명(34.6%)이었고, 122명(57%)은 '보통이다'로 답하였으며, 적응을 '잘못한다'로 답한 학생도 18명(8.4%)이나 되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인관계는 '보통이다'로 답한 학생이 116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쁘다'로 답한 학생이 73명(34.%)이었다<Table 1>.

#### 2.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귀인성향은 6점 만점에 평균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내적 성향 4.35점, 외적 성향 3.39점, 우연 성향 3.48점으로 내적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3.18점, 사회적 자기효능감 3.25점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하위 요인은 간호과정 3.03점, 간호기술 3.47점, 교육/협력 관계 3.44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52점, 전문직 발전 3.47점으로 대인관계/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 $t=3.75, p<.001$ )과 임상수행능력 점수( $t=2.44, p=.015$ )가 유의하게 높았고, 귀인성향은 차이가 없었다. 학년 간,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은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간호학에 '만족한다'로 답한 학생이 '보통이다'로 답한 학생보다 자기효능감( $F=5.44, p=.005$ ), 임상수행능력( $F=22.26, p<.001$ )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학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그저 그렇다'로 답한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F=11.49, p<.001$ ), 귀인성향( $F=1.03, p=.359$ )과 자기효능감( $F=1.73, p=.180$ )은 간호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	23(10.7)
	F	191(89.3)
Grade	3rd degree	148(69.2)
	4th degree	66(30.8)
Grade point average	4.0-4.5	28(13.1)
	3.6-3.9	134(62.6)
	3.0-3.5	52(24.3)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144(67.3)
	Common	255(25.7)
	Dissatisfied	15(7.0)
Adjustment to nursing	Good	74(34.6)
	Fair	122(57.0)
	Not good	18(8.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25(11.7)
	Fair	116(54.2)
	Not good	73(34.1)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 (N=214)

Variable	Min	Max	Mean±SD
Attribution disposition	2.21	5.00	3.73±0.46
Internal	2.50	5.88	4.35±0.65
External	1.50	5.00	3.39±0.72
Accident	1.00	5.00	3.48±0.63
Self-efficacy	2.26	4.96	3.20±0.42
General	2.06	4.94	3.18±0.45
Social	1.67	5.00	3.25±0.54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2.27	4.76	3.44±0.47
Nursing process	1.73	4.45	3.03±0.43
Nursing skill	1.82	5.00	3.47±0.53
Education/cooperation	2.00	5.00	3.44±0.56
Internalrelation/communication	1.83	5.00	3.52±0.59
Professional development	1.56	4.89	3.47±0.56

Table 3. Difference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	3.70±0.49	-0.31	.754		3.51±0.59	3.75	<.001		3.66±0.46	2.44	.015	
	F	3.73±0.46				3.16±0.38				3.41±0.41			
Grade	3rd degree	3.71±0.48	-1.01	.313		3.20±0.42	-0.04	.967		3.44±0.47	0.04	.962	
	4th degree	3.78±0.41				3.20±0.43				3.44±0.46			
Grade point average	4.0-4.5	3.68±0.43	0.29	.748		3.32±0.52	1.37	.254		3.35±0.55	0.47	.622	
	3.6-3.9	3.73±0.46				3.17±0.42				3.42±0.47			
	3.0-3.5	3.76±0.49				3.20±0.40				3.45±0.39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3.31±0.44	1.72	.180		3.46±0.60 <sup>a</sup>	5.44	.005	a>b	3.88±0.51 <sup>a</sup>	22.26	<.001	a>b,c
	Common	3.82±0.46				3.28±0.45 <sup>b</sup>				3.66±0.48 <sup>b</sup>			
	Dissatisfied	3.80±0.61				3.14±0.38 <sup>c</sup>				3.31±0.39 <sup>c</sup>			
Adjustment to nursing	Good	3.79±0.58	1.03	.359		3.37±0.53	1.73	.180		3.82±0.50 <sup>a</sup>	11.49	<.001	a>b,c
	Fair	3.69±0.43				3.17±0.41				3.53±0.50 <sup>b</sup>			
	Not good	3.78±0.49				3.20±0.42				3.33±0.40 <sup>c</su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3.84±0.50	3.69	.027		3.30±0.46	2.95	0.54		3.69±0.46 <sup>a</sup>	17.74	<.001	a>b,c
	Fair	3.70±0.42				3.14±0.36				3.31±0.39 <sup>b</sup>			
	Not good	3.57±0.50				3.18±0.53				3.31±0.52 <sup>c</sup>			

Table 4. Correlations Matrix Variable

Variable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r(p)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179(.009)	.379(<.001)
Self-efficacy	.308(<.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Variables	B	SE	$\beta$	t	p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Self-efficacy	.418	.070	.380	5.969	<.001				
Attribution disposition	.246	.062	.245	3.967	<.001	.335	.315	17.355	<.001
Satisfaction with nursing	.187	.050	.246	3.782	<.001				

적응을 '잘하고 있다'로 답한 학생이 평균은 더 높은 편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인관계가 '좋다'로 답한 학생이 '그저 그렇다'로 답한 학생보다 귀인성향(F=3.69, p=.027), 임상수행능력(F=17.74, p<.001)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4.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임상수행능력은 귀인성향(r=.179, p=.009), 자기효능감(r=.379, p<.001)과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귀인성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08, p<.001) <Table 4>.

#### 5.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간호학 만족도, 간호학 적응, 대인관계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귀인성향,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 중 명목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다중 공선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는 -.308~.184로 .80 미만으로 서로 간에 독립적임이 확인되었고, 공차 한계(Tolerance)가 .761~.984로 0.1 이상이고 분산 팽창 인자(VIF)값은 1.016-1.31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과 제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간호학 만족

도( $\beta$ =.246, p<.001), 귀인성향( $\beta$ =.245, p<.001), 자기효능감( $\beta$ =.380, p<.001)은 임상수행능력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31.5%이었다(Table 5).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귀인성향은 6점 만점에 평균 3.73점으로, 하위 요인은 내적 성향 4.35점, 외적 성향 3.39점, 우연 성향 3.48점으로 내적 성향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14)의 연구결과 내적 성향 4.40점, 외적 성향 3.46점, 우연 성향 3.30과 유사한 결과이다.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외부나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라고 생각하는 내적 성향이 타인이나 외부로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성향이나 우연히 일어나거나 운으로 생각하는 우연 성향(Leveson, 1981)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 타인이나 운으로 탓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인성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Kim과 Ha (2000)는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요인 연구에서 외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만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같은 환

경에서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내적 성향이 외적 성향이나 우연 성향을 조절하며 내적 성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간호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인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학문으로 귀인성향은 간호대학생이 학업 및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간호 대상자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귀인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호학에서 귀인성향에 대한 유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간호대학생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Kang과 Jeong (2012)의 자기효능감 3.49점보다 낮은 점수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Lee (2014)의 3.33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본 연구와 같은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14)의 자기효능감 3.00점, 2학년부터 3개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Cho, Ra와 Park (2008)의 2.87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가 다르고, 학년 간 차이라고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기 효능감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 현상이므로(Bandura, 1977)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임상실습 후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자기효능감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간호학에 적응을 잘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남학생인 경우,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실제적인 수행 경험과 대리 경험을 통해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Bandura, 1977)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 결과는 간호학에 적응을 잘하면서 학과 선택에 만족하고 그에 따른 성취를 경험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남학생은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한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직업에 대한 남다른 목표를 갖고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Kim & Lee, 201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Lee와 Park (2013)의 3.71점 보다 낮은 점수이나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과 Kwon (20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3.49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남학생 3.66점, 여학생 3.41점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Kim과 Hwang (2014)의 남학생 3.48점, 여학생 3.30점과 일치한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적 특성으로 지도력이 있고 여학생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진취적 성향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 하위 요인 중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 영역이 3.0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과 Hwang (2014)의 전문직 발전 영역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나 간호과정 영역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Chaung (2011)과 Kim과 Park (2014)의 연구에서도 간호과정이 영역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임상실습 시 간호사의 간호과정 활용을 관찰할 기회가 적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직접 간호 수행보다는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 교과목 집담회 시간에 이론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과정은 환자를 사정하고 계획, 중재, 평가하는 간호고유의 영역으로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며 문제해결능력은 최근 임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간호과정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임상실습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임상실습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Kim과 Park (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Yang (2015)의 연구결과와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Hsieh와 Kang (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에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간호학 만족도로 Kim과 Park (201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Yang (2015)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결국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에니어그램 상담 프로그램, 긍정심리 프로그램 등 정신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M시 소재 일개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은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성별,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남학생인 경우, 간호학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귀인성향, 간호학 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귀인성향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지므로 간호대학생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외부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귀인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 및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An, G. D. (1987).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perceived classroom climate, and their interaction on academic performance and learning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nner, P., Sutphen, M., Leonard, V., & Day, L. (2010). *Educating nurses : a call for radical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e.
- Campbell, B. & Mackay, G. (2001).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5(2), 22-30.
- Chaug, S. K.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10.05282>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sieh, P. H. & Kang, H. S. (2010). Attribution and self-efficacy and their interrelationship in Korean EFL context. *Language Learning*, 60(3), 606-627. <http://dx.doi.org/10.1111/j.1467-9922.2010.00570>
- Jang, H. J. & Kwag, Y. K. (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4380-4387.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Kim, D. J. & Lee, J. S.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Kim, G. S., Cho, Y. H., Ra, J. S., & Park, J. Y.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networks, and health behavior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2), 211-223.
- Kim, K. W., Kang, K. H., & Jeong, G. H.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51>
- Kim, K. H.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Kim, S. M. & Hwang, T. Y. (2014).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06-61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606>
- Kim, S. M. & Park, S. Y. (2014).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409-3421.
- Lee, E. K. & Park, J.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93-30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ee, M. J. & Jung, D. Y. (2014). The impact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program for emergency airway management on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1), 1-10.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1>
- Lee, S. K. & Lim, S. A. (2014).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attributional styles,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5), 195-216.
- Lee, W. H., Kim, C. J., Yoo, J. S., Hur, H. K., Kim, K. S., & Lim, S. M. (1991).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13, 17-29.

- Leve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In H. M. Lefcourt (Eds.).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pp. 15-66). New York: Academic Press
- Nelwati, S., McKenna, L., & Plummer, V. (2013). Indonesian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stress in clinical learning: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5), 56-65.
- Pai, H. C. (2015). The effect of a self-reflection and insight program on the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1(5), 424-431.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15.03.003>
- Park, Y. S. & Kwon, Y. H. (2013).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341-350.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Seo, H. J. (2011). *The effect of attribution tendency and ego-resilience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tra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67.
- Shin, K. A. &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5-56.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Shin, E. J. (2008). Satisfaction of practice and clinical skill in participation learning and observation learning.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7(2), 195-207.
- Shin, Y. W., Lee, H. J., & Lim, Y. J.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1), 37-47.
- Yang, S. Y. (2015).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370 - 378. <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370>
- Yune, S. J., Park, K. H., Chung, W. J., & Lee, S. Y. (2011). The effects of attribution tendencies, academic stress, and coping efficacy on academic adjustment of medic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3(3), 167-174.

##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Kim, Su Ol** (Graduate School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So My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214 nursing students who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via spss win 21.0. **Results:** The total mean score for attribution disposition was  $3.73 \pm 0.46$ , self-efficacy was  $3.20 \pm 0.42$ , and clinical competence was  $3.44 \pm 0.47$ . Clinical competence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ribution disposition ( $r = .179$ ,  $p = .009$ ) and self-efficacy ( $r = .379$ ,  $p < .001$ ). In a multivariate approach, predictors included explained 33.5% of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e. Significant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were attribution disposition ( $\beta = .245$ ,  $p < .001$ ), self-efficacy ( $\beta = .380$ ,  $p < .001$ ),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 $\beta = .246$ ,  $p < .001$ ). **Conclusion:**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is needed to improv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attribution disposition and attribution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